

KINX IR Book

For Investors and Stockholders

IR 팀(ir@kinx.net)

2025년 12월

KINX

※ Disclaimer

본 자료는 회사의 현황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전망 및 투자포인트 등 일부 내용은 연관 산업 동향에 대한 일반자료 및 당사의 미래 계획에
근거한 것이므로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I N D E X

I. 기업 현황

II. 서비스 구조

- 1. IDC, CloudHub
- 2. IX
- 3. CDN, Cloud

III. 서비스 특징과 경쟁력

IV. 전망 및 투자포인트

KINX(Korea Internet Neutral eXchange)는 기업 고객을 대상(B2B)으로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네트워크 인프라와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IDC, Cloudhub, IX, CDN, Clou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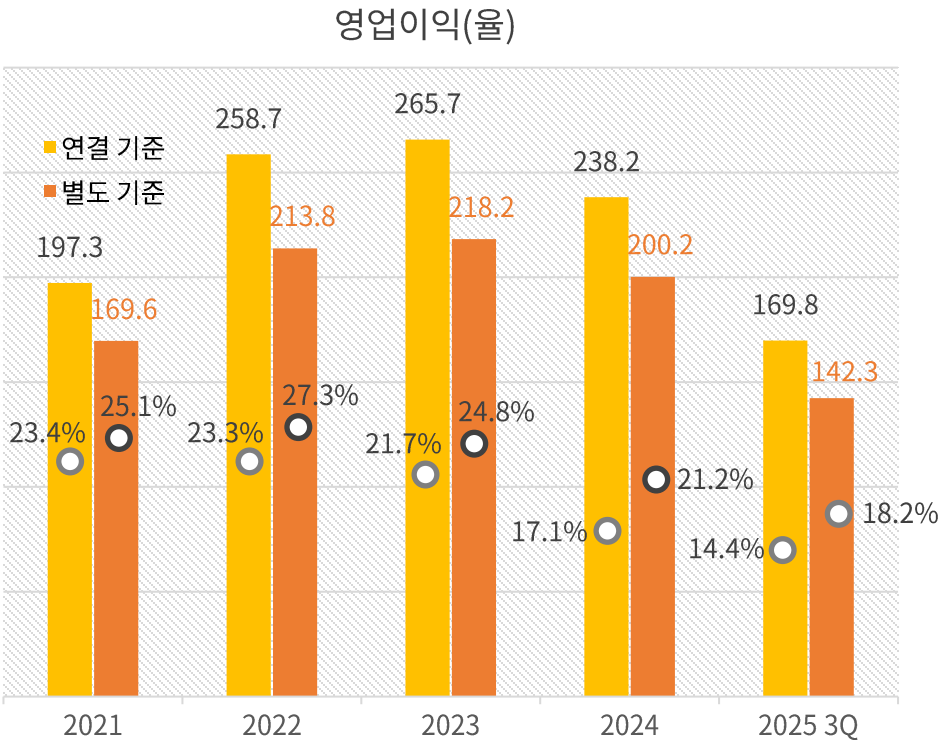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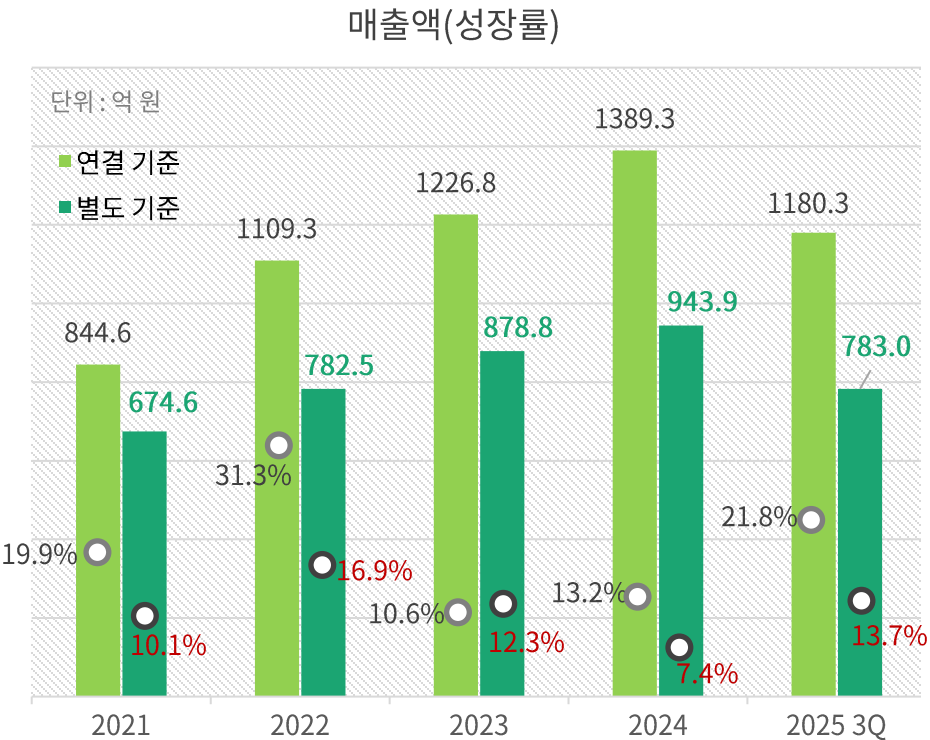
20년 이상 국내외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70% 이상은 기술 및 개발, 컨설팅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
| 회사명 | (주) 케이아이엔엑스 (KINX, Inc.) |
| 설립일 | 2000년 6월 17일 |
| 대표이사 | 김지욱 |
| 주요서비스 | IDC, CloudHub, IX, CDN, Cloud |
| 사무실 / 본점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34, A동 4층 (갈현동) |
| 도곡센터 / 지점 과천센터 / 지점 | 서울 강남구 언주로 30길 13(도곡동) 대림아크로텔 5층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34, B동 (갈현동) |
| 규모 | 매출액 : 943.8억(24년 기준, 별도), 임직원수 : 180명 (25년 11월 기준) |
| 홈페이지 | http://www.kinx.net |

KINX는 네트워크 연결 서비스와 데이터센터 서비스를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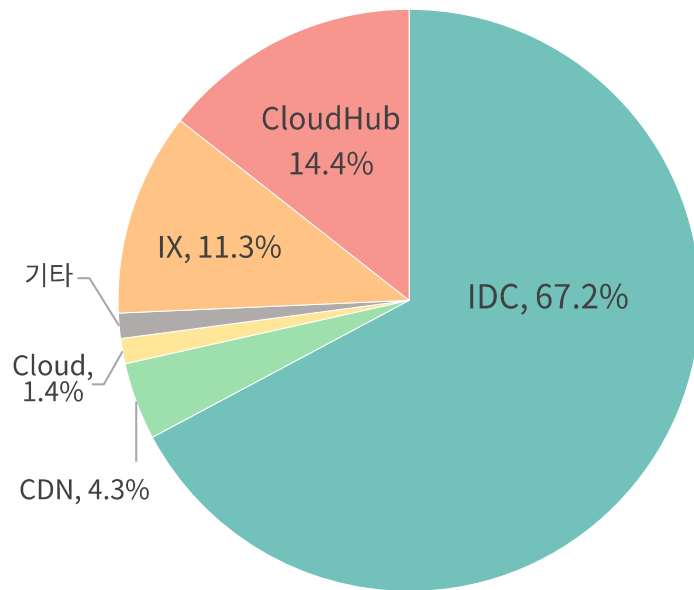
2024년 연결기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매출 성장률 16.8%, 평균 영업이익율 22.1%입니다. 자회사를 제외한 당사의 2024년 별도 매출은 전년 대비 7.4% 성장한 943.8억 원이며, 영업이익율은 21.2%입니다. 국내외 고객들의 네트워크 사용량 및 클라우드 허브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익률도 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해 매출의 증가는 대체로 기존 고객들의 사용량 증가분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신규 고객은 서비스 초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 증가에 기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KINX가 제공하는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는
IDC, CloudHub, IX, CDN,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은 IDC 서비스와 CloudHub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4년 기준 IDC 서비스는 전체 매출의 약 67%, CloudHub 서비스는 약 14%, IX 서비스는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과천 데이터센터를 통해 IDC 서비스의 매출 비중은 향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loudHub 서비스는 IDC 서비스 내 네트워크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2023년부터 IX 서비스 매출액을 넘어서며 추가 구분하였으며, 국내 클라우드 시장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별 매출 비중



[Data] 서비스별 매출 비율(2024년 별도매출 기준)

| Service Category | Share of Revenues (100% in total) *approximately | Sales/Cost Factor |
|------------------|---|---|
| IDC | 67.2% | Rack power consumption, Network(Traffic) |
| CloudHub | 14.4% | Network(Traffic) |
| IX | 11.3% | Network(Traffic) *Port charge |
| CDN | 4.3% | Contents capacity(storage), Network(Traffic) |
| Cloud | 1.4% | Resource usage(VM), Network(Traffic)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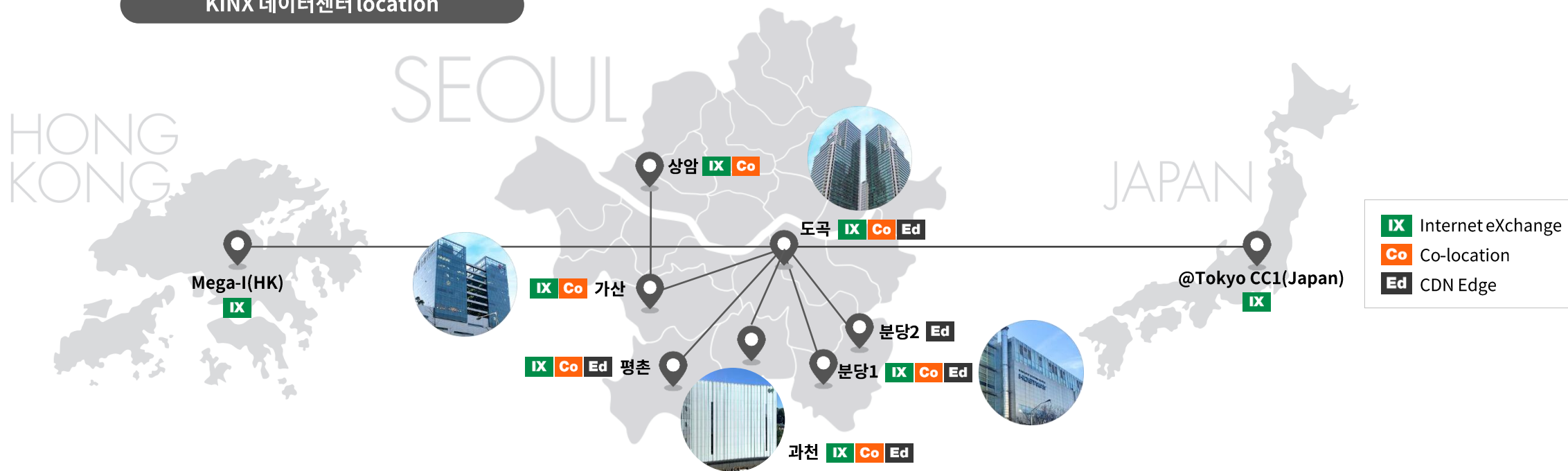
KINX의 데이터센터는 도곡센터를 시작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모든 센터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가센터인 도곡센터를 중심으로 가산, 상암, 분당 지역에 LGCNS, 삼성SDS, Hostway와 같은 당사의 다양한 인프라 제공이 가능한 IDC사업자들의 IDC를 임차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 홍콩에는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PoP)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프라 추가 확장을 위해 과천에 신규로 자가 데이터센터 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8월 21일 준공 승인, 동년 12월 서비스 오픈 완료

KINX 데이터센터 location



※ 과천 신규 데이터센터의 투자 및 센터 규모 등의 상세한 내용은 맨 뒷장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서비스는 B2B 인프라 비즈니스로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용어들이 있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서비스 구조 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설명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 몇 가지를 간략히 안내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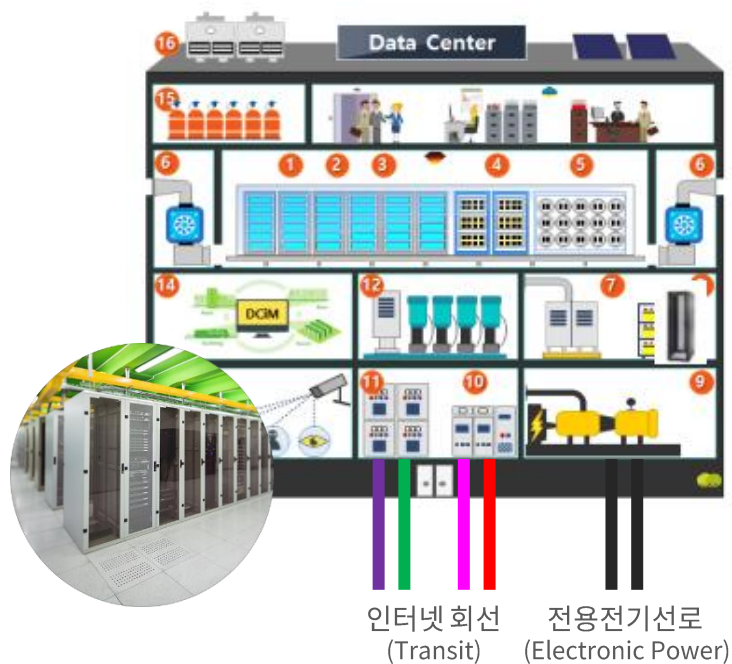
| | | |
|--------------|------------------------------------|---|
| 고객의 유형 | CP (Contents Provider) | 인터넷 콘텐츠(방송, 영화, 게임, 음원, 언론, 어플리케이션 등)를 생산하거나 보유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광범위하게는 서버에 콘텐츠나 데이터, 시스템 등을 저장하고 이용하는 일반기업들도 CP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 | CSP (Cloud Service Provider) | 개인이나 기업 등을 상대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아마존, MS, 구글, 오라클 등의 글로벌CSP와 KT, 네이버 등의 국내 CSP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주체는 대체로 기업고객(CP)입니다. |
| |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 개인이나 기업 등을 상대로 인터넷접속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인터넷 사용자는 ISP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KT, LGU+, SKBB 등 대형 ISP와 MSO(종합유선방송사) 등이 있으며, 당사의 주요 ISP 고객은 MS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인프라 관련 용어 | 랙(Rack) | 데이터센터 내에 서버, 스토리지, 인터넷통신장비 등의 전산장비를 장착하는 규격화된 일종의 선반을 말합니다. 표준랙 1개에는 42대의 서버를 장착할 수 있는데, 발열 등의 이유로 통상 20대 내외의 장비를 장착합니다. |
| | 상면(Rack space) | 랙(Rack)을 놓는 공간을 말합니다. 상면의 규모는 데이터센터의 전력량과 함께 센터 규모 설명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있어 ‘여유 상면’이란 Rack을 몇 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
| | 대역폭(bandwidth) | 네트워크 회선의 용량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통신 트래픽이 한꺼번에 흐를 수 있는 최대 범위나 폭을 의미합니다. 1Gbps 대역 폭이면 초당 1GB의 인터넷 트래픽이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는 회선의 용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 중계접속(Transit) | 흔히 트랜짓이라고 부릅니다. 트랜짓은 통신에 있어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하나 이상의 교환점을 통하여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KINX의 데이터센터에는 다양한 회선사업자의 회선들이 인입되어 있어 KINX를 거쳐 고객이 원하는 회선사업자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

IDC 서비스는 크게 데이터센터, 인터넷 회선과 전력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인프라 서비스입니다.

데이터센터는 서버나 스토리지, 인터넷 통신장비 등의 전산장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는 전산실 전용 건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데이터센터를 ‘서버호텔’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IDC 서비스는 먼저, 데이터센터에 연결된 인터넷 네트워크 회선과 전력선을 통해 고객에게 통신연결과 전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영업, 마케팅, 컨설팅, 운영, 자원조달, 고객지원 등의 역량이 결합될 때 IDC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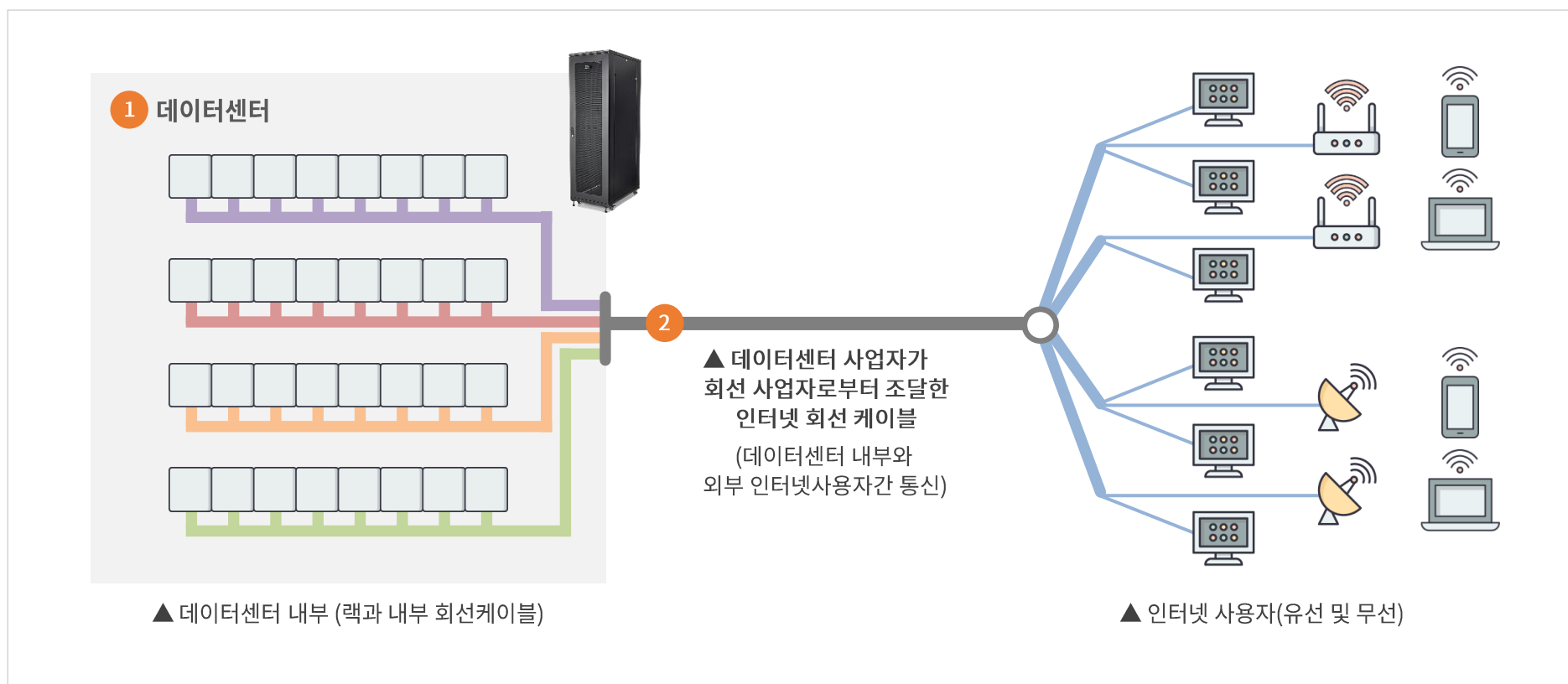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72호,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

- 제3조(규모) 데이터센터의 규모는 해당 건축물 내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sqm(약 151평) 이상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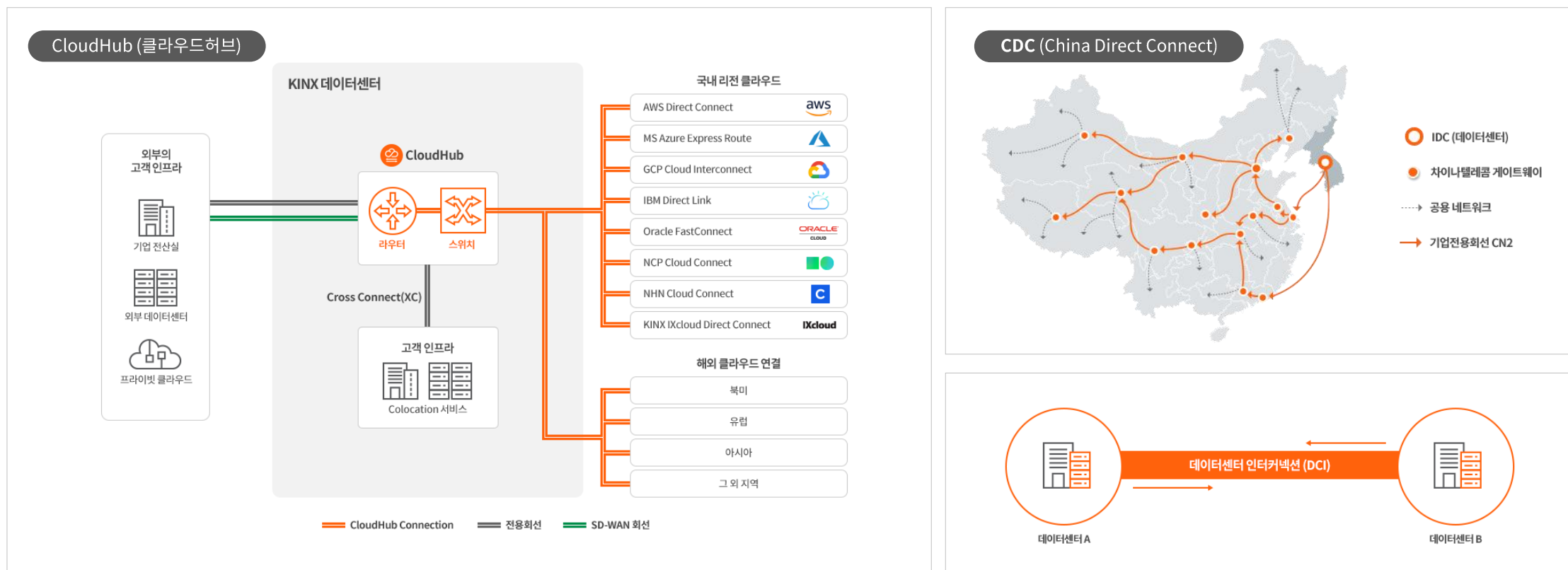
IDC 서비스의 요금 부과 구조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이 사용하는 랙(Rack)의 수량과 랙당 필요전력량에 따라 ① **공간사용료**를 매월 부과하고, 고객의 전산장비와 인터넷 사용자 및 고객이 원하는 국내외 추가 연결서비스 등 고객이 사용하는 각 연결서비스 당 트래픽량에 따라 ② **회선사용료**를 매월 부과합니다. 즉, 고객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공간(상면, Numbers of Racks)과 연결 서비스 트래픽량(Network traffic)에 따라 매월 요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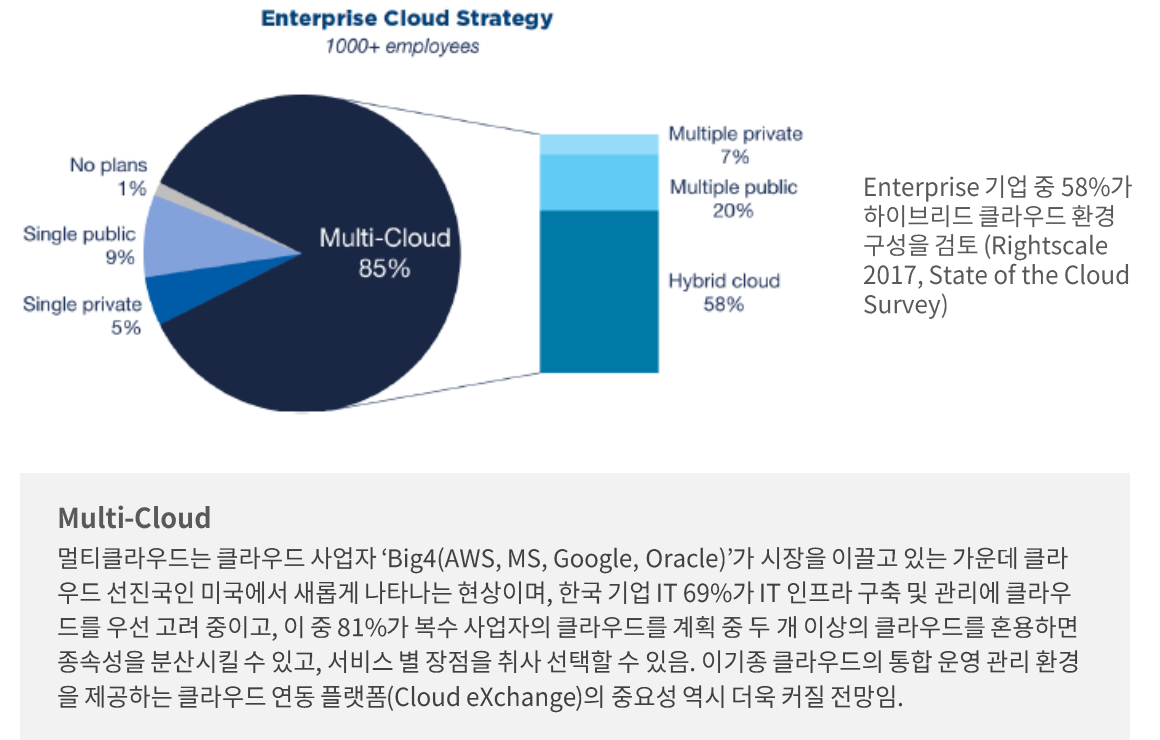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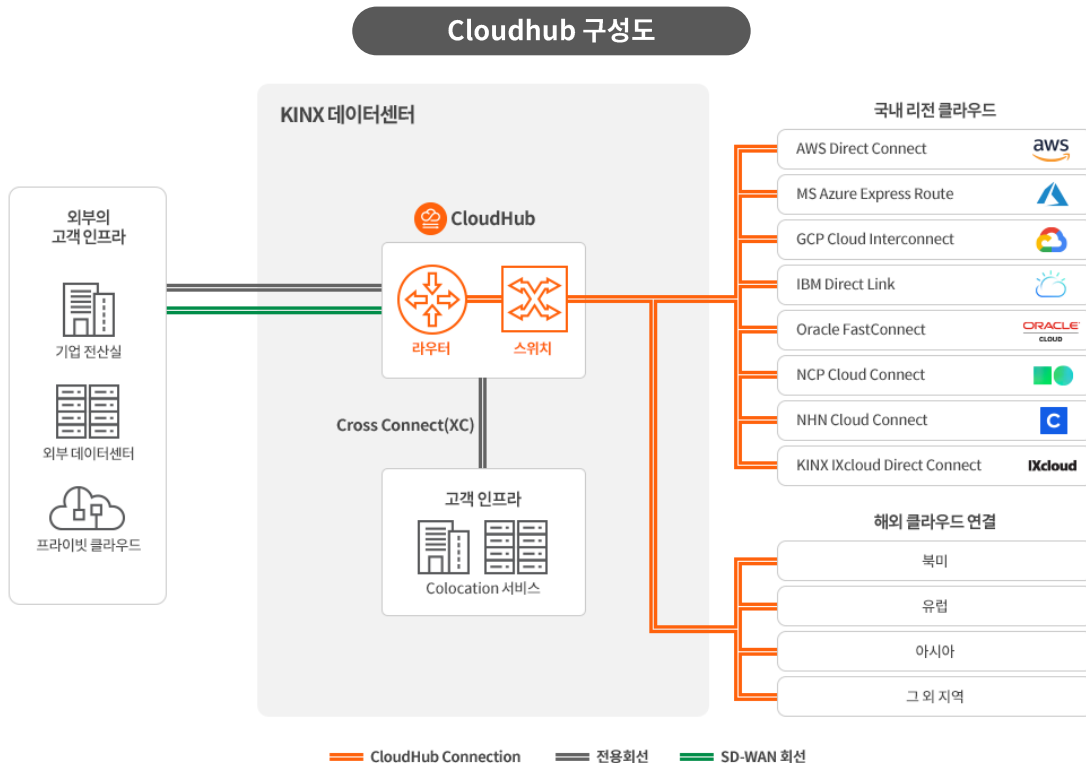
IDC 서비스에는 다양한 네트워크 연결 서비스가 있습니다.

고객의 전산자원과 인터넷 사용자들 간의 인터넷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국내 회선 연결(Local IP Transit) 서비스를 기본으로, 해외 회선 연결(국제 IP Transit), 센터 내 입주하거나 당사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 간의 연결(Inter-Connection), 데이터센터 간의 연결(DCI), 전용회선 서비스 등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INX가 제공하는 CloudHub는 여러 주요 CSP들과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이며, 고객에게 클라우드 직접/다중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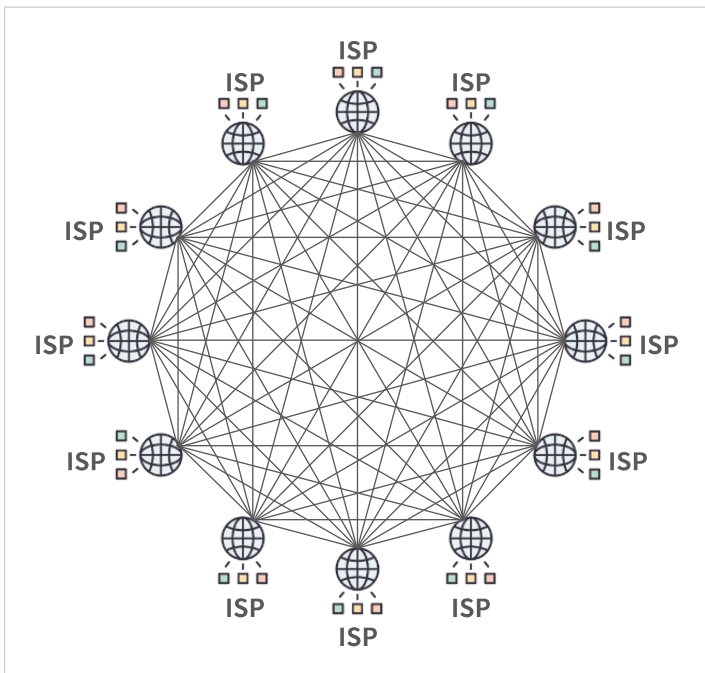
CloudHub(클라우드허브)는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네트워크 비용을 줄여주고 빠른 속도의 클라우드 접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CloudHub 수요는 지속적인 회선 연결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클라우드 이용 수요 증가, 멀티 클라우드 수요 증가,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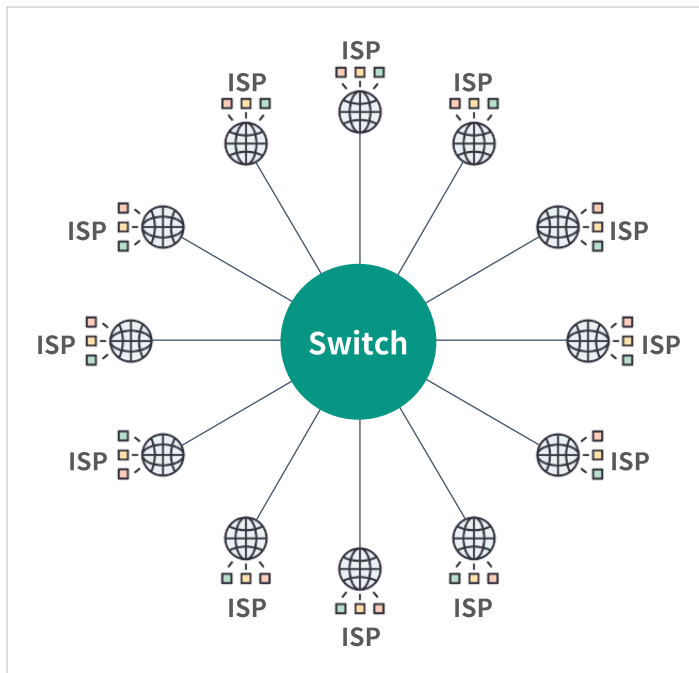
IX는 네트워크 망을 보유한 ISP들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인터넷통신 교환시설입니다.

물리적으로 ‘스위치(switch)’라는 통신장비를 운영하는 있는 시설입니다. IX 고객인 ISP는 자신의 네트워크 망과 연결된 회선을 스위치에 연결함으로써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타 ISP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ISP간 상호 직접접속 : 비효율, 고비용



ISP간 IX 연동 접속 : 고효율, 저비용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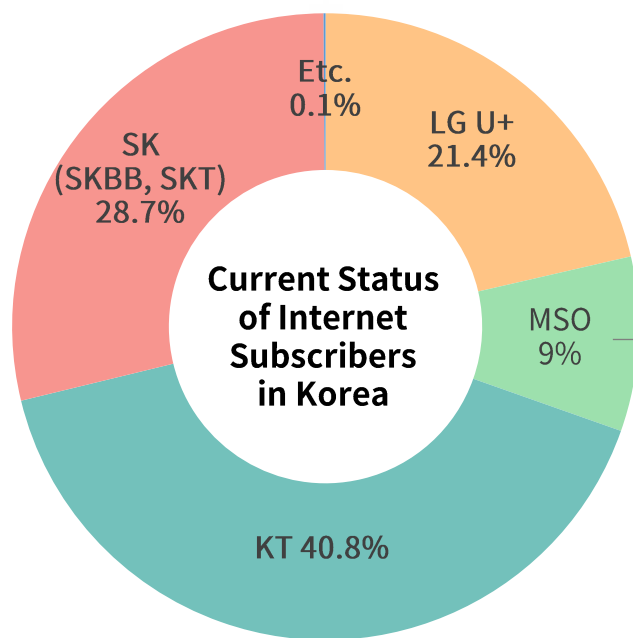
자체적으로 네트워크 망을 운영하며,
인터넷 사용자에게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IX Switch

당사의 주요 ISP 고객은 케이블TV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 MSO)입니다.

트래픽의 연동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IX서비스의 특성상 인터넷 트래픽의 흐름에 중요한 변수인 연동망에 접속해 있는 ISP들의 인터넷 가입자수를 통해 대략의 연동 규모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KINX의 주요 연동고객인 MSO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는 약 217만명으로 전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중 9.0%이며, 기타 기업 가입자 등을 감안하면 약 10% 내외의 인터넷 가입자가 매일 당사의 인터넷연동시스템(IX)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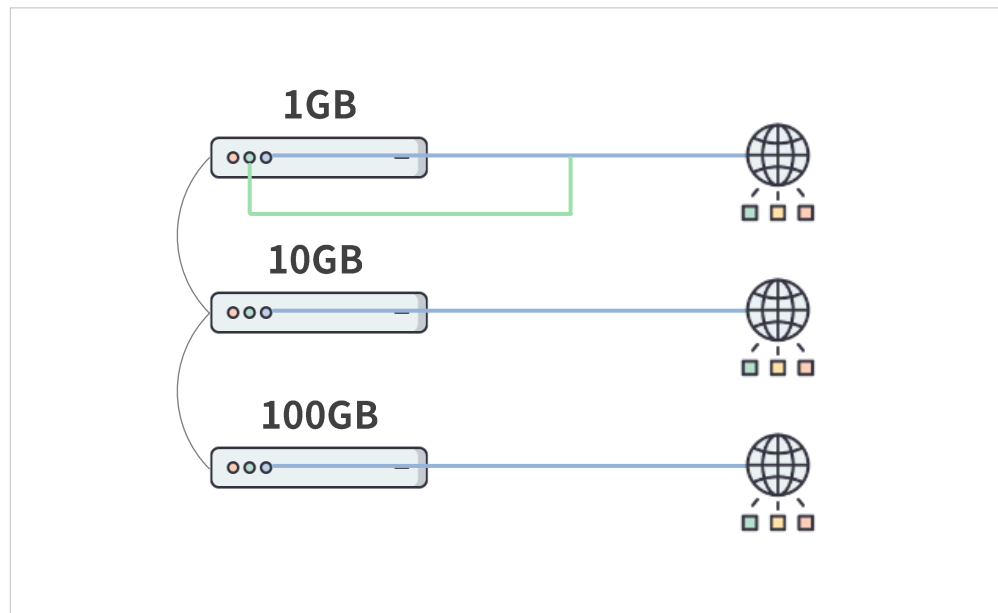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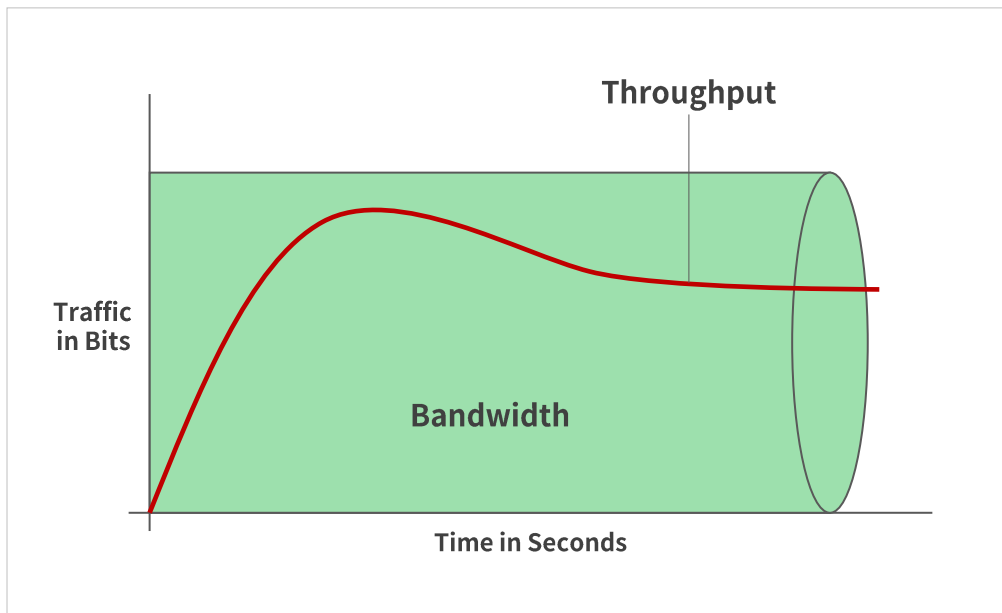
MSO(Multiple System Operator)



※ Sourc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Homepage, Statistical data, 2023

IX서비스의 요금은 고객들이 IX 스위치에 연결한 회선 포트수와 해당 포트의 대역폭에 따라 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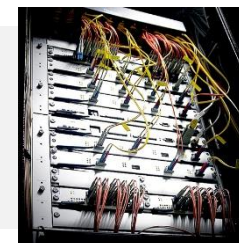
IX 스위치의 대역폭은 1GB, 10GB, 100GB 등으로 구분하며, 대역폭 당 책정되어 있는 요금과 회선 포트 수에 따라 전체 요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역폭 내의 트래픽 변화는 요금에 영향을 주지 않고, 트래픽이 대역폭을 넘게 되면 포트 연결을 추가하여 요금을 추가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대역폭(bandwidth)

통신 트래픽이 한꺼번에 흐를 수 있는 최대 범위나 폭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1Gbps 대역폭이면 초당 1GB의 인터넷 트래픽이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는 통로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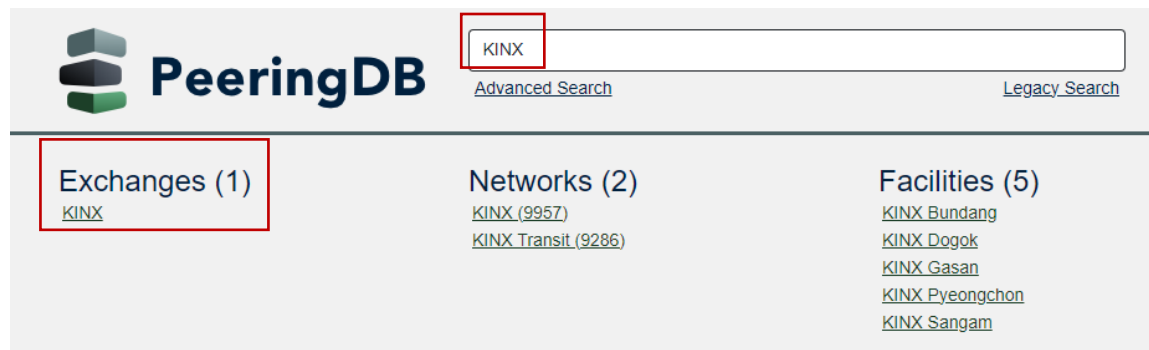
IX Switch ▶



KINX IX 고객은 ISP를 기본으로
컨텐츠를 인터넷 사용자에게 전송하고자 하는 CP, CSP 고객들도 있습니다.

ISP에는 딜라이브, 현대HCN, LG헬로비전, ABN 등과 같은 MSO와 국내외 회선사업자가 있으며,
네이버, 카카오, 드랍박스과 같은 CP, 아마존, MS, 구글, 오라클, 네이버와 같은 CSP들이 있습니다.

www.peeringdb.com



국내 ISP(MSO/SO) 부문



국내 기타 ISP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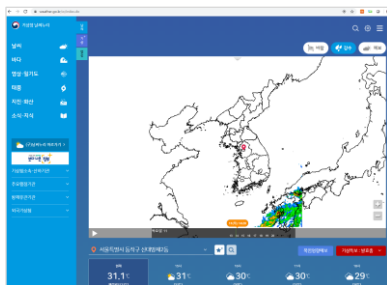


국내외 CP/CSP 부문



CDN서비스는 인터넷 콘텐츠를 분산해서 전송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의 서버에 일정 정도 동시 접속하는 인원이 많이 몰리더라도 접속 불가나 접속 지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있으며, 요금은 기본적으로 전송하는 콘텐츠의 트래픽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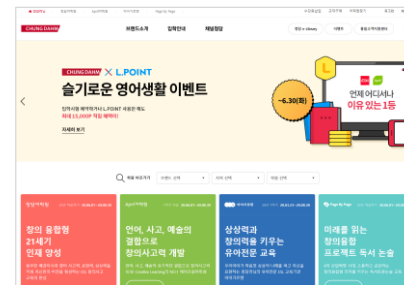
▲ 기상청 홈페이지



▲ 국세청 연말정산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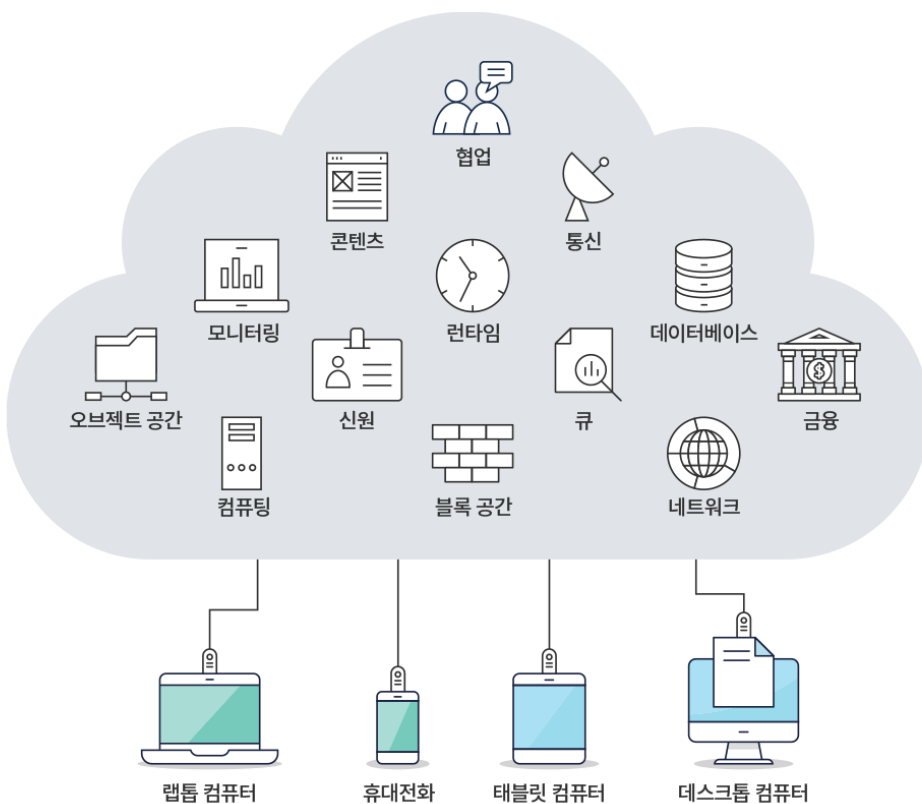
▲ 한국교육학술정보원(e교과서 배포)



▲ 청담러닝(어학교육)

클라우드 서비스는 가상서버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객은 물리적인 서버, 스토리지 등의 전산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인터넷 상에서 클라우드 웹페이지를 통해 동일하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은 클라우드에서 생성한 클라우드 가상서버(VM)의 수량, 가상서버와 인터넷 사용자 간의 통신하는 트래픽 양에 따라 매월 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IXcloud란?

IXcloud는 KINX가 2012년 9월부터 상용서비스를 하고 있는 Public Cloud 입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쉽게 구축하고 대규모로 확장이 가능한 오픈소스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Openstack)을 기반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전세계 18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한 Openstack은 AWS (Amazon)와 같이 대규모로 운용중인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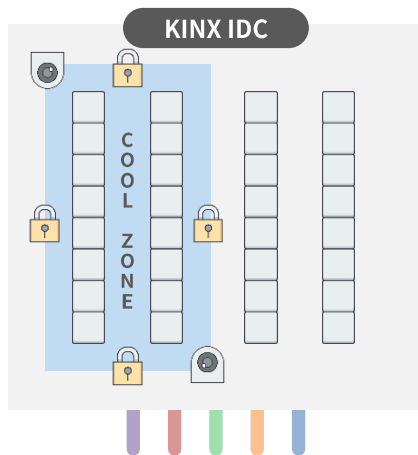
KINX가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의 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시스템 운영 기술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INX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이자 경쟁력은 다양한 고객맞춤형 서비스입니다.

KINX는 데이터센터 내부 환경이나 네트워크 연결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즉, 고객의 니즈와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성과 자율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중립적 서비스’라고 합니다. 고객은 자신의 데이터센터 및 회선 운용 정책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르고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KINX는 고객 및 시장 변화를 파악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옵션을 발 빠르게 제공하고자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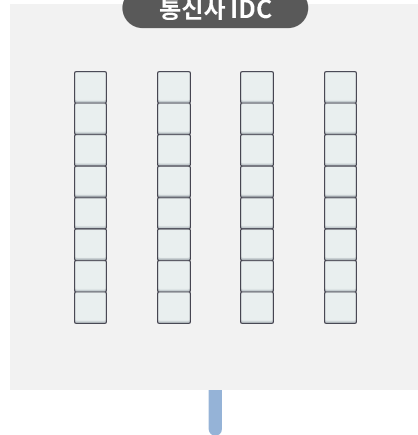
중립적 데이터센터



1. 고객의 정책(요구)에 따른 다양한 상면환경 구성
2. 다양한 회선공급자의 네트워크 회선 인입
 - 고객의 회선 선택권 및 회선비용 절감
 - 회선 이중화 가능
3. 당사의 기술/관제 인력이 직접 관리 및 운영

→ 고객의 정책(요구)에 따름

통신사 I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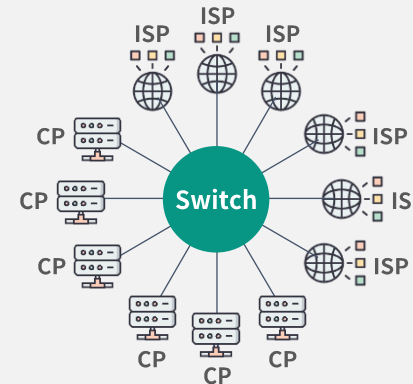


1. 통신사의 IDC 정책에 따른 상면환경 구성
2. 해당 통신사의 네트워크 회선만 인입
3. 표준화, 규격화 되어 있어 대체로 IDC 운영 인력은 외주화

→ 통신사 정책(요구)에 따름

국내 유일 중립적 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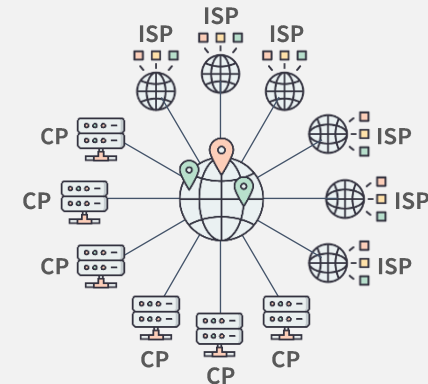
KINX IX



IXP를 통한 직접 연동(Peering)

1. 회선 사업자 자율선택 가능
2. 낮은 비용 (Only Port Fee)
3. Short Routing Path

통신사 IX



ISP를 통한 상호 연동(회선)

1. 회선 사업자 선택 권한 없음. 즉, IXP에 종속됨
2. 높은 비용 (Port+Traffic 비용)
3. Long Routing Pa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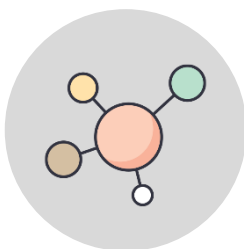
KINX는 고객에게 다양한 네트워크 옵션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국내외 다양한 주체들과 고품질의 네트워크 연결을 선택할 수 있어 네트워크 운영 안정성과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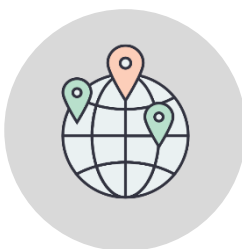
당사는 데이터센터의 공간을 주로 제공하는 타 사업자 대비 다양한 네트워크 옵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는 공간(상면)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아 2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네트워크 기술역량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확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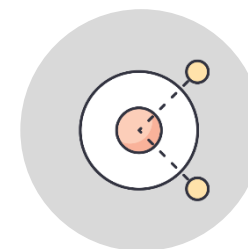
IX
(인터넷 연동, 피어링)



Global PoP
(해외 연결 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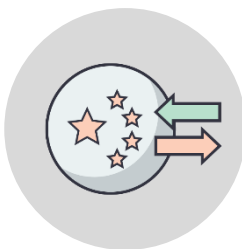
Transit
(다양한 국내외 회선사업자들을
선택/연결)



Cross Connect
(IDC 내 원하는 두 지점을
전용회선으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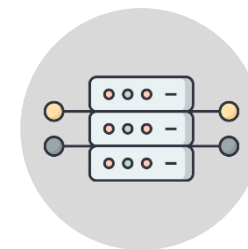
DCI
(데이터센터 간의 연결)



CDC
(차이나 다이렉트 커넥트)



Cloudhub
(클라우드허브, 국내/해외)



Dedicated line
(전용회선)

KINX는 20년 이상의 서비스 노하우와 기술적 전문역량으로
다양한 업종의 국내외 기업과 정부기관 고객들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INX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 레퍼런스들은 기존 고객 뿐만 아니라
잠재 고객들에게도 신뢰와 안정감을 주고, 고객 유지 및 영업 경쟁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kakao

amazon

Google

NAVER



D'LIVE

Microsoft



Connect
Wave

SAMSUNG
삼성SDS

ORACLE®

Alibaba.com™

NBP
NAVER
BUSINESS
PLATFORM

CDNetworks
Accelerating Your World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자본시장 IT 파트너
koscom
www.koscom.co.kr

ncia
정부통합전산센터
National Computing & Information Agency

기상청

NC

HYUNDAI

최근 국내 데이터센터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주요 산업은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입니다.

2018년부터 아마존을 비롯한 해외 CSP들과 국내 CSP들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CSP들과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기업들로 인한 데이터센터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 전망 성장세는 확실하다. 단순 규모 뿐 아니라 전환율도 높아지고 있다.

| (십억원) | 클라우드 시장 | | | | | 클라우드 시장 시나리오별 추정 | | | | | |
|------------|---------|-------|-------|-------|-------------------------|------------------|-------|-------|-------|-------|--------------|
| | '14 | '15 | '16 | '17 | | '18E | '19E | '20E | '21E | '22E | '17~'22 CAGR |
| 시장규모 | 524 | 766 | 1,189 | 1,513 | 시장규모(Scenario1, Bear) | 1,998 | 2,421 | 2,724 | 3,027 | 3,330 | |
| 클라우드 전환율 | | | | 5% | 클라우드 전환율 | 7% | 8% | 9% | 10% | 11% | 17.1% |
| YoY Growth | | 46.3% | 55.2% | 27.3% | YoY Growth | 32.0% | 21.2% | 12.5% | 11.1% | 10.0% | |
| 시장규모 | 524 | 766 | 1,189 | 1,513 | 시장규모(Scenario2, Normal) | 1,998 | 3,027 | 3,935 | 4,843 | 5,751 | |
| 클라우드 전환율 | | | | 5% | 클라우드 전환율 | 7% | 10% | 13% | 16% | 19% | 30.6% |
| YoY Growth | | 46.3% | 55.2% | 27.3% | YoY Growth | 32.0% | 51.5% | 30.0% | 23.1% | 18.8% | |
| 시장규모 | 524 | 766 | 1,189 | 1,513 | 시장규모(Scenario3, Bull) | 1,998 | 3,330 | 4,540 | 5,751 | 6,962 | |
| 클라우드 전환율 | | | | 5% | 클라우드 전환율 | 7% | 11% | 15% | 19% | 23% | 35.7% |
| YoY Growth | | 46.3% | 55.2% | 27.3% | YoY Growth | 32.0% | 66.7% | 36.4% | 26.7% | 21.1% | |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WS, 공공·의료 영역 AI·클라우드 혁신 속도

발행일 : 2025-09-21 17:00 지면 : 2025-09-22 13면



아마존웹서비스(AWS)가 국내 공공과 의료 영역에서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반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데이터 사일로 해소와 거버넌스 강화, 생성형 AI 적용을 앞세워 구체적 성과를 내는 점에서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핵심 시스템인 정부24와 120콜센터에 적용된 AI 챗봇이 AWS 클라우드에서 운영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정부 AI 챗봇이 어떤 인프라 위에서 운영되는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AWS는 보건복지부 'AI 복지 알림 서비스' 인프라까지 지원, 공공 분야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분야에서는 △데이터 통합 플랫폼 '헬스레이크' △유전체·전자의료기록(EMR) 연계 분석 서비스 '헬스 오믹스' △의료영상 압축·저장 솔루션 '헬스이미징' 등을 제공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인다.

당사의 국내외 기존고객과 잠재 고객들이 영위하고 있는 인터넷 기반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영역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 확산과 정착, AI산업의 성장, 정부의 IT 산업 육성 정책 등은 인터넷 기반 산업의 성장과 확대를 보다 앞당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KINX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 및 수요 기업들의 필수적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와 네트워크 연결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점]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 2030년까지 83% 성장 전망

 박정환 기자 입력 2025-09-28 07:11

AI·클라우드 투자 급증에 해마다 12.9% 고성장...코로케이션 시장 4조 원 돌파 예상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이 클라우드 도입과 인공지능(AI) 워크로드 확산으로 2030년까지 2.64GW(기가와트)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모더 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가 지난 26일(현지시각) 발표했다.

AI·클라우드 수요 폭증으로 고성장 지속

모더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올해 1.44GW에서 2030년 2.64GW로 확대되며 해마다 평균 12.8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케이션(임대형 데이터센터) 서비스 매출은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케이션 매출은 올해 11억6000만 달러(약 1조6300억 원)에서 2030년 30억2000만 달러(약 4조2500억 원)로 급증해 해마다 평균 21.11%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조사기관들도 비슷한 성장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는 최근 발표한 '2025년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 리포트'에서 국내 데이터센터 총 수전 용량이 지난해 기준 약 1.9GW에서 2028년까지 약 4.8GW로 늘어날 것이라며 해마다 평균 성장률을 26.4%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도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가 지난해 6조 원을 처음 넘어선 뒤 해마다 평균 13.13%씩 늘어 2028년 10조19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이퍼스케일 정부 정책이 성장 견인

데이터센터 시장 성장의 주요 동력은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와 AI 기술 도입 확산이다. 현재 국내 상업용 데이터센터 수요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클라우드플랫폼(GCP) 등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모더 인텔리전스는 보고서에서 "금융서비스업, 정부, 통신 기업들이 클라우드 전력을 가속화하면서 한국을 클라우드 중심 성장의 핵심 허브로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IT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고 정부의 스마트시티, 5G, 디지털 정책 등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시장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T 시장분석기관 한국IDC는 올 6월 보고서에서 "AI로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올해 4461MW에서 2028년까지 6175MW로 1.4배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 지속, 글로벌 기업 투자 확대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은 수도권 지역 중심의 성장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모더 인텔리전스는 "수도권이 기업 밀도와 하이퍼스케일 업체들의 존재감 때문에 여전히 최대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조사에서도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의 약 75%가 수도권에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규 구축을 계획하는 데이터센터 39개소 중 32개소(82%)가 비수도권을 입지로 고려하고 있어 앞으로 지역 분산 가능성도 감지된다.

시장 참여자들도 다변화하고 있다. 세빌스코리아에 따르면 전력 공급 능력 기준으로 수도권 데이터센터 투자자 중 사모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 비중이 지난해 23%에서 2028년 63%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에퀴닉스(Equinix), 디지털 리얼티(Digital Realty) 등 글로벌 운영사들이 인천, 안산, 용인 등지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KT, 네이버,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주요 기업들도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다.

한편, 한국 데이터 전문가들은 "AI 컴퓨팅과 서비스 관련 수요가 확대되며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전력 공급 문제와 환경 규제 강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해지면서 시장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지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면서 "특히 전력 인프라가 부족하고 데이터센터 건설 허가 절차가 복잡해져 새로운 시설 구축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한다.

“AI 데이터센터 시장 2032년까지 131조원 규모 확대”

발행일 : 2025-08-03 13:11 지면 : 2025-08-04  1면

글로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가 향후 7년간 연평균 26.8%씩 성장해 936억달러(약 1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최근 'AI 데이터센터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AI 기술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주요 기업이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면서 2032년까지 관련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적으로 AI 기술·서비스와 AI(AI 전환) 수요가 늘어나면서 에너지 효율성과 확장성을 갖춘 AI 기반 데이터센터가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한 결과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와 엣지컴퓨팅 발전이 AI 데이터센터 시장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KINX는 과천 데이터센터를 바탕으로 더욱 큰 Step-Up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INX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통해 고객에게 대규모 자원운용 공간 뿐만 아니라 최첨단 인프라와 보다 강화된 고객맞춤형(중립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KINX는 고사양의 데이터센터 인프라와 네트워크 집적도가 높은 전략적인 고객 유치를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영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를 통해 한 단계 더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중립적 데이터센터 서비스 사업자로서의 포지셔닝을 보다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과천 신사옥과 데이터센터 조감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과천 데이터센터 관련 추정 참고 정보

1. 전체 투자비 : 약 1,800억원 규모

가. 데이터센터에 해당하는 건물, 시설비 전체 예산규모임.

나. 자체 내부보유 현금 및 공사 기간 이익/현금흐름 및 저리의 산업시설대출로 전체 투자비 충당 가능
→ 2024년 12월 말 기준 차입금 약 715억원 (순차적으로 상환 진행 중)

2. 건설 및 운영 규모

가. 수전용량 20Mw 중 **고객제공 전력량(IT Load) 10Mw**, 별도 예비수전 20Mw(유사시에만 사용)
(고객제공 전력량 기준 기존 센터(도곡+가산+상암+분당) 전력량의 2.5배 수준)

나. 설계 PUE 1.3 (그린데이터센터 설계 인증, 기존 1.5~1.6 수준)

3. 운영/수익 목표

가. 2024년 12월 서비스 오픈 완료 → 2025년 말까지 80%(Full-CAPA) **계약** 목표

나. 감가상각비 연 80억 수준 발생 → 2024년 9월부터 일부 발생, 12월부터 Fully 반영(분기별 20억원 대)

신규 데이터센터는 기존의 센터들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증설되는 센터입니다.

해당 데이터센터는 부지 내 함께 지어지는 사무동 건물과는 구분되며, 데이터센터는 KINX가 전부 투자하여 건설하고 운영합니다.



▲ 실제 KINX 과천 데이터센터 전경

과천 데이터센터 관련 현황 안내(25년 4분기)

1. 층별 입주 할당 기준

| 고객 할당 전력(IT Load) : 10Mw | | |
|--------------------------|------------------|-----|
| 4층 | 다수의 중,소규모 고객 할당 | 3Mw |
| 3층 | 대형 고객 할당 (계약 완료) | 3Mw |
| 2층 | 대형 고객 할당 (계약 완료) | 3Mw |
| 1층 | 가비아 + @ 고객 할당 | 1Mw |

2. 계약 / 매출 현황*

1) 계약 : 현재 80% 수준 계약 완료(기존 목표 달성) → 전체 ‘입주’는 2027년 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

2) 매출 : 2025년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매출이 발생
→ 별도 기준 최저 영업이익률 16%(2025년 1분기)를 기점으로 점차 성장

※ 계약 시점과 고객사 입주 시점이 다른 이유? (매출 발생 시점)
→ 계약 시점 : KINX와 고객사 간에 ‘계약 체결’을 완료한 시점 (매출 미발생 혹은 공사비 1회성 발생)

→ 입주 : 계약이 완료된 고객이, 고객사별 입주 일정에 따라 장비 반입 및 Ramp-up 진행(약 2~3개월)
: 해당 기간은 기본적인 고객사의 장비 세팅 및 테스트 기간으로 매출 미발생
- Ramp-up 기간 종료 후 실질적인 공간사용료 + 회선사용료 발생 시작
: 고객사별 입주는 일괄 입주를 진행하기도 하나 대형 고객인 경우, 장비 입주를 월/분기/반기 등으로 나눠서 진행하기도 함

Thank you

“Expand Your Connection”

KINX